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와 형이상학*

박 병 철

【요약문】 강진호 교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이 1913년 무렵에는 형이상학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1916년 말 사이에 논리의 본성에 대한 견해의 변화로 인하여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논리-철학 논고』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의 가정과 주장들에 대해 몇몇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의 견해가 형이상학과 관련한 중요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러셀, 강진호

1.

최근 발표한 논문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¹⁾에서 강진호 교수는 “논리노트”²⁾ 작성 시점인 1913년 10월부터 『참전노트』³⁾를 마무리할 시점인 1916년 12월 사이에 형이상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 즉 비트겐슈타인이 원래 형이상학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았으나 논리의 본성에 대한 견해의 변화로 인해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그의 논증과 그것이 지니는 철학적 함축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논리노트”와 “무어노트”⁴⁾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는 기호이론과 동일시되었다. 기호이론이란 서로 다른 유형의 기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호화하는지를 설명한 이론이다. 그런데 기호이론으로는 ‘요소문장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참전노트』에서 집합이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최종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원논고』⁵⁾에서 요소

1) 강진호 (2009),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철학적 분석』 제20호 (한국분석철학회). 강진호 교수의 논문은 2009년 6월 27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분석철학회 여름학술대회의 발표문을 토대로 한 것이며, 나는 당시 강진호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논평자였다. 이 글은 강진호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나의 논평문을 보완, 발전시킨 토론논문이다.

2) Ludwig Wittgenstein (1913), "Notes on Logic", Appendix I to Wittgenstein (1979)

3) Ludwig Wittgenstein (1979), *Notebooks 1914-1916*, 2nd ed. (Oxford: Blackwell)

4) Ludwig Wittgenstein (1914), "Notes Dictated to G. E. Moore in Norway", Appendix II to Wittgenstein (1979)

5) Ludwig Wittgenstein (1971), *Protractatus: An Early Version of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문장들의 가능한 논리적 형식을 선형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 즉 논리를 기호이론과 동일시했던 견해를 포기한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논리에서 기본적인 것은 추론 개념이다. 추론이 토대하고 있는 이론은 없으며, 논리 자체와 논리의 적용을 날카롭게 구분한다. (이러한 논리에는 두 단계의 형식적 특성이 있다. 하위 단계에는 요소문장들의 논리적 형식들과 기호 유형이, 상위 단계에는 추론, 참, 거짓, 긍정, 부정, 연언, 선언, 사실, 원자사실, 대상 등이 속해 있다. 오직 상위 단계의 특성만이 진정으로 논리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새로운 논리에는 (세계에 대한) 선형적이고 필연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형이상학적 함축을 갖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함축을 지닌다고 여겨지는 『논고』⁶⁾ 앞부분의 사실, 원자사실, 대상 간의 존재론적 진술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 불가능한 무의미한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논고』를 반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논리 개념을 “논리노트” 및 “무어노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른바 ‘단호한’ 해석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강진호 교수는 명료하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논증을 전개하고 있으며, 만약 옳다면 그의 견해는 형이상학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아래에서 강진호 교수의 가정과 주장들에 대해서 몇몇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의 견해가 형이상학과 관련한 중요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⁶⁾ Ludwig Wittgenstein (1922/196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2.

강진호 교수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노트”와 “무어노트”에서 러셀의 논리 이론이 지닌 문제점들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러셀은 논리학에 대해 ‘세계의 가장 보편적 특성들 및 이 특성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한 탐구’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학은 사실상 형이상학과 구분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1900년부터 1913년까지 러셀의 저술에서 ‘형이상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러셀은 자신이 발전시킨 새로운 논리학이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던 것을 대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제 자신의 철학을 위해 논리학 이외에 따로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는 것이다.⁷⁾

러셀이 새로운 논리학을 통하여 자신의 철학 체계(경험주의를 견고한 기초 위에서 재구성 하려는 시도)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1910년대 초까지 자신의 논리학으로 형이상학을 대치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러셀은 1912년에 출간한 『철학의 문제들』⁸⁾에서 여전히 인식론적 문제들과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가 이 책에서 시도한 것은 그의 새로운 논리학을 인식론적 문제들에 적용하려 한 것이다. 이 시기에 단지 그가 인식론적 문제들에 치중하고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잘 다루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의 논리학의 적용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성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인식론이었기 때문이다.⁹⁾

7) 강진호 (2009), 88쪽.

8) Bertrand Russell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9) Russell (1912), Preface를 볼 것.

아마도 러셀이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구성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은 “논리적 원자론의 철학”¹⁰⁾일 것이다. 논리적 원자론을 통해 그는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실재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러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대체로 논리적 원자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에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마도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비트겐슈타인의 버전이 의미론적인 반면, 러셀의 버전은 경험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러셀은 애초에 논리학으로 형이상학을 대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그가 나중에 발전시킨 형이상학도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1910년대 초 러셀의 생각은 강진호 교수가 논문의 서론에서 인용한 “논리노트”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¹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철학이 논리와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러셀이 동의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논리를 형이상학의 토대로 본 것은 분명하다.

3.

강진호 교수는 『원논고』에서부터 논리의 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의 변화로 말미암아 형이상학이 붕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원자사실, 대상에 대한 『논고』의 초반부 진술도 사실은 이해 불가능

¹⁰⁾ Bertrand Russell (1918),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reprinted in *Logic and Knowledge*, ed. R. C. Marsh (London: Allen & Unwin, 1956)

¹¹⁾ “철학은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학은 그것의 토대이다 (“논리노트”, p. 106).” 강진호 (2009), 86쪽.

한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한 진술이 과연 이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설사 그와 관련한 강진호 교수의 간략한 논증이 전부 옳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논고』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좀 더 심각해 보이는 형이상학적 진술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강진호 교수는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나 ‘원자사실은 대상들의 조합이다’와 같은 진술들이 형이상학적 진술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 형이상학적 진술일 수 있단 말인가¹²⁾라고 수사적으로 강하게 반문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논고』의 5.6부터 5.641에 이르는 일련의 진술들이 훨씬 더 형이상학적이며 완전히 이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진술들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일련의 진술들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의 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강진호 교수는 이러한 진술들에 대해서도 그 이해 불가능성을 논증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 진술의 대부분은 『참전노트』에서 발췌된 것이며, 작성된 시기는 1916년 7-8월이다. 강진호 교수에 따르면, 이 시기는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전이다. 이는 아직 형이상학이 성립 불가능해지는 단계에 작성된 진술들이 아니며, 따라서 강진호 교수는 이 진술들이 『논고』에 여전히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참전노트』에 등장하는 관련 진술들은 신, 세계, 의지, 운명, 유아론, 윤리학 등 『논고』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형이상학적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¹²⁾ 강진호 (2009), 87쪽.

이런 의미에서 신은 단지 운명이거나 아니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세계,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독립적이다. 나는 스스로 운명과 독립적이 될 수 있다.¹³⁾

위 진술은 『논고』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3일 전에 쓴 내용 “세계는 나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진술은 『논고』 6.373 에 다시 등장한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질게 풍기는 다음과 같은 진술도 나온다.

나는 ‘의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선과 악의 담지자라고 부를 것이다. (중략) 의지(Will)의 능력이 전혀 없지만 오로지 (예를 들어, 보는 것의) 관념(Idea)의 능력만 있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윤리학이 없는 세계 역시 가능할 것이다.¹⁴⁾

이들 진술은 전부 유아론에 대한 진술 전후에 등장하며, 또한 『논고』의 구성과 유사하게 명제의 일반형식에 대한 논의와 섞여 있다. 즉, 『논고』에서건 『참전노트』에서건 우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논리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맥락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불과 몇 달 후에 논리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전부 무의미해지는 그런 진술들로 보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나는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저작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러한 형이상학적 진술들이 논리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즉 강진호 교수의 생각처럼 원래는 형이상학에 대한 반감이 없었는데, 논리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형이상학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와

13) 『참전노트』 74쪽, 1916년 7월 8일.

14) 『참전노트』 77-78쪽, 1916년 7월 21일.

반대로 처음에는 단지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상학적 함축을 지니는 진술들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나의 작업은 논리학의 기초에서부터 세계의 본성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참전노트』의 진술은 의미심장하다.¹⁵⁾ 그렇게 생각해야만 『논고』의 5.6-5.641의 진술들이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강진호 교수의 논리를 따른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세계의 본성으로 확대된 관심은 논리의 본성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포기했다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나 심경의 변화로 인해 『논고』에서 다시 다루게 된 것이 된다. 그러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동일한 주제에 대한 두 번의 극단적인 변화를 상정할 좋은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는 어느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이고, 그 중 특히 유아론의 문제는 『논고』를 넘어 중기 저작들에서도 빈번하게 고민하게 된 문제다.¹⁶⁾ 그래서 강진호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비트겐슈타인이 왜 1929년에 철학계로 복귀한 후로부터 유아론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중단되는 1936년까지 형이상학적 진술을 빈번하게 계속했는지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강진호 교수는 “논리노트”와 “무어노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기호이론’과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이라는 생각을 발전시키

15) 『참전노트』 79쪽, 1916년 8월 2일.

16) David Pears(1987-8)는 유아론이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으며, Brian McGuinness(2001)는 『논고』의 유아론의 배경을 여러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다.

게 된다고 말한다.¹⁷⁾ 그러한 생각은 러셀의 논리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용어의 선택에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과 같은 것을 발전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서로 다른 유형의 기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호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호이론을 수립하고 그것을 논리학과 동일시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마치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의 논리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려는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그가 발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도들로서 전적으로 논리에 대한 생각만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정리된 형태의 이론으로 보기도 어렵다. “논리노트”의 성격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러셀은 1913년 5월 자신이 쓰고 있던 『지식의 이론』¹⁸⁾ 원고를 비트겐슈타인에게 보여주었으나 젊은 제자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고 원고 집필을 중단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은 러셀이 발전시키고 있던 판단의 이론에 대한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그가 러셀이 논리적 언사를 포함한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논리사(logical terms)의 형식에 대한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 xRy ”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러셀의 설명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비트겐슈타인으로서도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그는 논리적 경험과 같은

17) 강진호 (2009), 91쪽.

18) Bertrand Russell (1984), *Theory of Knowledge: The 1913 Manuscript* (London: George Allen & Unwin)

부가적 전제 없이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 해 6월 편지를 통해 러셀에게 전달한다. 절망한 러셀이 1913년 10월 노르웨이의 오지로 떠나려는 비트겐슈타인을 붙잡고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속기사에게 받아 적게 했는데, 바로 그 결과물이 우리가 “논리노트”라고 알고 있는 글이다.

우리는 “논리노트”가 러셀의 판단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해결책을 보여주려고 한 글이라는 것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다음을 보도록 하자.

복합에 관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명제는 그 명제의 구성요소들에 관한 명제와 그 복합을 완전하게 기술하는 명제--즉, 복합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명제--에 대한 명제로 분석될 수 있다.¹⁹⁾

위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나중에 진리함수론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의 초기 형태에 해당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복합(complex)에 대한 명제는 복합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명제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곧 러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러셀은 그가 ‘복합’이라고 부른 이른바 논리사의 형식에 대한 직접지(acquaintance)가 가능하며, 그래야만 “aRb”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와 ‘그리고’, ‘또는’, ‘아니다’와 같은 논리적 연결사를 포함한 분자명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의 의미는 그것과 실제로 대응하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원자명제들에 대한 ab-함수 연산의 반복 적용을 통해서 분자명제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분자명제의 논리적 형식에 해당하는 분자 복합(molecular complexes)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러셀의 생각과 달

¹⁹⁾ “논리노트”, 93쪽.

리, 분자 복합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분자명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러셀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프레게는 “명제들은 이름들이다”라고 말했다. 러셀은 “명제들은 복합들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둘 다 틀렸는데, 특히 “명제들은 복합들의 이름들이다”라는 진술이 틀렸다.²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러셀이 했던 것처럼 ‘복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명제들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 대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진호 교수가 『참견노트』에 와서야 비로소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 “논리는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진술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무어노트”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논리적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 논리 이외의 (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했던 러셀의 생각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이외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대상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러셀의 논리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진호 교수의 주장대로 이 시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의미의 가능성이 서로 다른 유형의 기호들이 기호화하는 방식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생각이 완성된 이론의 국면에 다다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세계의 구조

20) “논리노트”, 97쪽. 또한 다음을 참고할 것: "There is no thing which is the form of a proposition, and no name which is the name of a form. Accordingly we can also not say that a relation which in certain case holds between things holds sometimes between forms and things. This goes against Russell's theory of judgment." “논리노트”, 105쪽.

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참전노트』에서야 구체화된 다.) 그래서 논리학이 기호이론과 동일시되고, 따라서 형이상학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²¹⁾ 그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5.

강진호 교수는 비트겐슈타인의 기호이론이 ‘요소문장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는 (1) 요소문장들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2) 요소문장의 가능한 논리적 형식은 무엇인가의 문제다. 강진호 교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인 근거로 다시 그가 ‘논리의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논리는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진술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노트』에서 집합이론을 논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집합이론의 해결책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논리를 기호이론과 동일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는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요소문장의 문제’가 해결해야만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소문장의 가능한 논리적 형식이나 그 예에 대한 문제는 “논리노트”와 “무어노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무어노트”에 등장하는 사례는 이름이 서로 다른 (논리적) 유형에 관한 것이라는 것 외에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에서 시작한다.²²⁾ 이로부터

21) 강진호 (2009), 95쪽.

22) 『참전노트』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은 관계와 속성이 대상이라고 말한다(61쪽). 그러나 강진호 교수는 『원논고』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름의 범주에 모든 유형의 속성 및 관계 기호들이 속하게 된다고 말한다(강진호 (2009), 106쪽).

터 결국 분석 불가능한 명제들이 어떤 이름이나 관계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할 때, 명제의 일반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지만 그리 심각한 고민이 아니다.²³⁾ 이후 『참전 노트』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제기되고 고민된 흔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비트겐슈타인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생각을 일관적으로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 이르러서 답을 찾은 셈이다. 그것은 강진호 교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의 근거가 아니라 답인 것이 맞다.

강진호 교수가 ‘요소문장의 문제’의 예로 들고 있는 “27항 관계 형식의 요소문장은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만약 1913년 5월의 러셀이라면 이 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그는 논리적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가능한 모든 논리적 형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그 당시에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수 없다. 『논고』 5.4731에서 “러셀이 그렇게 많이 말했던 자명함(self-evidence)은 논리학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이 바로 앞의 진술 5.473을 부연하는 것임에 주목하자. 『참전노트』 2쪽의 언급을 반복하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논리학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 가능한 기호는 또한 지칭할 수도 있어야 한다. 논리학에서 가능한 모든 것은 또한 허용되어 있다.” 즉 러셀에게 27항 관계 형식의 요소문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자명한 것이겠지만,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논리학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논리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러셀의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이다.

23) 「무어노트」, 111쪽.

6.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덧붙여서 강진호 교수의 논문이 지난 가장 큰 약점은 강진호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는 강진호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하고 있는 주장들의 많은 부분이 문헌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강진호 교수가 말하는 기호이론은 어떤 점에서 텍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론인가? 기호이론에 대한 강진호 교수의 논의는 있지만 텍스트의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또 논리와 동의어가 포기된 내용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기호이론과 강진호 교수가 생각하는 기호이론 사이의 구분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그가 논문을 전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즉 논리의 본성에 대한 견해의 변화로 인하여 비트겐슈타인이 형이상학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나는 강진호 교수가 논문의 도입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학은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학은 그것의 토대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앞뒤 문맥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 문장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보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철학에 연역은 없다. 그것은 순수하게 기술적이다.

철학은 실제의 그림을 부여하지 않는다.

철학은 과학적 탐구를 확증하지도 않고 논박하지도 않는다.

철학은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학은 그것의

토대이다.

인식론은 심리학의 철학이다.

문법의 불신은 철학하기에 있어서 첫째 필수요건이다.

(중략)

철학은 (원초적 명제 뿐 아니라) 과학적 명제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이론이다.

‘철학’이란 말은 자연과학의 옆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위 혹은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해야 한다.²⁴⁾

문맥의 성격상 우리는 위 언급들이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어떤 것은 『논고』에 그대로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논고』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고』에 다시 등장하는 언급만이 비트겐슈타인이 계속해서 유지한 생각이고, 다시 나오지 않는 언급에 대해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위에 인용된 생각들 거의 대부분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도 남아 있다. 케니(Anthony Kenny)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이며, 철학이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철학적 탐구』²⁵⁾는 물론 『확실성에 관하여』²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⁷⁾

나는 비트겐슈타인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볼 때, 위 인용문들에 나타난 생각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뀌었다고 주장할 좋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메타철학적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후기에 이를 때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철학에서 형이상학의 지위와 관련한

24) “논리노트”, 106쪽.

25) Ludwig Wittgenstein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26) Ludwig Wittgenstein (1969), *On Certainty* (Oxford: Basil Blackwell, 1969)

27) Anthony Kenny(2006), pp. 181-3을 볼 것.

것도 마찬가지다. 『탐구』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은 여전히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언어의 형이상학적 사용으로부터 올바른 사용인 문법적--혹은 논리적--사용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낱말들을 그것들의 형이상학적 사용으로부터 그것들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²⁸⁾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노트”에서부터 그가 생각하는 철학과 그 토대(논리)로부터 철학의 문제들(형이상학)을 바로 잡으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문법에 대한 불신이 후에 철학을 문법의 후견인으로 보게 만들고 있듯이, 철학이 형이상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8) 『철학적 탐구』, 116절.

참고문헌

- 강진호 (2009),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철학적 분석』 제20호, 한국분석철학회.
- Kenny, Anthony (2006), *Wittgenstein*, revised ed., Oxford: Blackwell.
- McGuinness, Brian (2001), "Solipsism in the Tractatus", in David Charles and William Child eds. *Wittgensteinian The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ars, David (1987-8), *The False Pri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rand (1918),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reprinted in *Logic and Knowledge*, ed. R. C. Marsh, London: Allen & Unwin, 1956.
- Russell Bertrand (1984), *Theory of Knowledge: The 1913 Manuscript*, London: George Allen & Unwin.
- Wittgenstein, Ludwig (1922/196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lackwell;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책세상, 2006)
- Wittgenstein, Ludwig (1971), *Protractatus: An Early Version of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ttgenstein, Ludwig (1979), *Notebooks 1914-1916*, 2nd ed.,

100 박 병 철

Oxford: Blackwell.

부산외대

Email: bcpark@pufs.ac.kr